## 함평군주민자치회출범…진정한지방자치시대서막열다

#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70여 명 참석이상익 군수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최선"

함평군이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서막을 열었다.

함평군은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 발대 식이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주민자치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함평군 청에서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위원 각오를 다

지는 선언문 낭독,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 한해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해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위원 선출 등 다양한 노력 을 해왔으며, 그 결과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 성된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이날 발대식 직후 운영세칙,

임원 선출방법 등을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과 화합,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는 등 주민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본 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회가 첫 출범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 '도농상생농산물직거래장터' 무안군 남악-해제면 도농교류창안대회 개최

무안군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노인회 (회장 김윤광)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제면 수포 마을(이장 최정현)이 지난 12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창안대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직거래 장터 판매는 해제면 수포 마을에서 싣고 온 해제산 농산물(소금, 콩)을 가지고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내 광장에서 진행됐다.

해제면 수포마을은 남악신동아파밀리에 주 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농산 물을 제공함으로써 직거래장터는 성황리에 마 무리됐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 여했다. 남악-해제면 직거래 장터는 오는 26 일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광장에서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현 이장은 "해제는 무안에 염전 3곳 중 2곳이 있는 지역으로 고품질의 소금을 저렴하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의미가 깊었다"고 전했다.

하영미 해제면장은 "도농 상생 교류 가치를 직접 현실로 보여준 행사였다"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꾸준한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 지 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악과 해제는 지난달 초에 첫 창안대 회를 열어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꾸준 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범 운영

#### 내일부터 해안로173번길…주민 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

목포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 했던 유달동·만호동의 근대역사거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일방통행 3개 구간 총 1,550m 중 해안로173번길(근대역사1관→여 객선터미널 인근, L=500m)에 대해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범 운영한다.

근대역사유산이 밀집된 이 구간은 보행로 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4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달 해당 구역 도로 정비공사를 마 무리함에 따라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 가변주차는 매월 15일 주기로 운영되며,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근 2개 도로의 일방동행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운영이 보행로 확보 뿐만 아니라 반대편 주차공간도 확보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보건소-세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지역사회 중심 재활업무 산학협력 공동 진행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15일 세한대학교와'지 역사회 중심 재활업무 협약(MOU)'을 체결했 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자 원대상자의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소물리치료 중재방법에 대한 치료적 훈련 과 교육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 력 및 기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

양대중 세한대학교 선임교수는 "이번 협약

으로 상호 효율적인 학술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국선 보건소장은 협력 작업으로 분석 도출되는 지역사회 현황을 통해 지역의 건강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구현과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더 건강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12월 16일까지 12주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진행

신안군은 지난 7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제1회 정원 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 교육(기초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은 신안군의 정원 지원과 수목 지원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품격있는 명품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 로그램으로 향후 신안군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 에게 질 높은 해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16일까지 12주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초 소양 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심화과정으로 정원해설사 민간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득이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품격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 모 든 지자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코로나19 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당부

영광군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7차 유행을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차 접종(기초접종) 이상 완료자중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다. 예방접종 장소는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서 실시 중으로, 사전예약 또는 당일 잔여백신을 이용해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 및 영광군 콜 센터(☎061-350-5562)로 문의면 된다.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6개 읍·면에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1일 불갑면을 시작으로 22일 백수읍, 23일 대 마면, 24일 묘량면, 28일 군서면, 30일 군남면을 각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도서지역인 안마, 송이도는 29일 방문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한다. 영광=서희권기자

